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혜영* · 허다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전공 부교수*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의상학전공**

A Study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Architecture and Fashion of the Modernism Period

Hye-Young Kim* · Da-Sul Hu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2004. 12. 3 토)

ABSTRACT

The modern period was the time that the most radical and extensive social and mental changes were occurring throughout the history, and modernism was prevailing as a general cognition system of people. Modernism, which carries principles of progress, belief in applica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worship of reason, ideal of liberty as a core value of civilization, was placed as a leading ideology in the realm of society, culture and art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is stud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odernism seen in architecture and fashion are analogized and analyzed in four way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P. Greenhalgh. First, 'Standardization for mass-production', which is analogized with P. Greenhalgh's 'Decompartimentalisation', 'Social Morality', and 'Technology'. Standardization for mass-production in architectur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design prototype in order to mass produce; the development of ready-made clothes is actively done in the fashion area for the same purpose as well. Second, 'Rational functionality' coming from P. Greenhalgh's 'The total work of art' and 'Function'. While rational functionality in architecture puts an emphasis on the rational operation of all the functions in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each part and the whole, rational functionality in fashion can be mainly seen in a dramatic increase in physical activity which could be hardly found before the modernism period. Namely, all the fashion design elements are developed for a certain rational and functional design on each part as well as on the whole in order to greatly increase physical activity. Third, 'the pursuit for genuineness of objects and universality of beauty' is on the analogy of P. Greenhalgh's 'Truth', 'Anti-historicism', 'Abstraction', 'Internationalism/Universality'. This idea is adopted in architecture in the form of design of geometrical abstraction. In the same way, design using geometrical abstraction comes to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fashion of the modernism period. So to speak, modernism architecture and fashion can be reborn to become an international style by giving up the decorative and regional

design prevailing before modernism and by expressing universal aesthetics in the form of simplicity and abstraction instead. Fourth, 'Expression of progress through a change in a viewpoint' stems from P. Greenhalgh's 'Progress',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Theology'. In architecture, this concept appears by using new construction materials and methods and by representing new aesthetical idea. As a result, it makes it possible for people to make progress for better lives. Like in architecture, new attempts for material application and processing are made in fashion. This gives rise to a general change in a viewpoint related to fashion, so that a new fashion design which there has never been before can come out.

Key words: modernism(모더니즘), architecture and fashion(건축과 패션), formative characteristics (조형적 특성), Paul Greenhalgh(폴 그린헬)

I. 서론

20세기 초 사회·문화·예술 전반에 대두된 모더니즘(modernism)은 1920년대의 이론적 시기, 1930년대의 양식적 시기를 거쳐 오면서 그 이념과 표현 방법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1820년대에 처음 사용된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는 진보적인 예술가들에게 사회적인 토대를 제공하면서 그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으며,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적 움직임의 선봉에 서서 기능이 둔화된 사회에 이제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존재 형식을 제공하였다.¹⁾ 즉, 근대사회의 공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물건의 미학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장식에 치중해오던 이전의 디자인 개념을 유용한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함을 제안한 것이다. 100여년에 걸친 현대 디자인사에 있어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디자인 활동은 조형 이념과 양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확립한 것이었고, 특히 인류의 삶에 기여한다는 윤리적 의식과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진보적 태도는 이후의 디자인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²⁾

그러나 이러한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던 시기에 이르러 그 사회·문화적 의미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가치절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까지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즘이에 관한 논의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 변별적으로 구분하려

는 나머지 20세기 초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한 시대를 풍미한 이 현상을 현대에 있어서는 단절된 듯한 관점으로 너무 편협하게 해석해 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원인인 모더니즘의 왜곡된 평가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에 대한 해석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모태인 모더니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패션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요즘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현상을 진단·분석하고 그 이전 시기인 모더니즘 패션과의 변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 패션에 대한 재평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패션에 있어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더니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현숙³⁾, 김은덕⁴⁾, 박혜원⁵⁾, 하지수⁶⁾ 등의 연구는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의 고찰을 통하여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 특성을 기능성·단순성·일상성·조형성·보편성·율동성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디자인 유형 분류의 틀과 이론적 배경의 관계에 있어 디자인 분석 시 그 형태적 특성과 이론적 배경의 특성과의 연결 근거가 미흡한 편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로 강진석⁷⁾, 전혜정⁸⁾, 박명희⁹⁾, 박숙현¹⁰⁾, 이미숙¹¹⁾, 유수경 외¹²⁾ 등은 뿌아레(Paul Poiret), 맥카델(Clair McCardel), 샤텔(Gabrielle Chanel), 발

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비오네(Madeleine Vionnet) 등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하여 모더니즘 패션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는 각 디자이너의 작품의 특성을 연구하여 모더니즘 시기에 유행했던 특정 스타일에 대한 조명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으나, 분석 대상이 되었던 각 디자이너의 디자인과 실제적인 모더니즘 사조와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선명하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위 선행연구들에서는 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론적·양식적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건축분야와 패션과의 비교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패션과 건축의 관계에 있어 프뤼겔(J. C. Flügel)은 복식의 유행이 건축과 실내 장식 같은 다른 유행과 어떤 패럴리즘(parallelism)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¹³⁾,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는 패션과 건축을 비롯한 디자인 분야는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인간 척도와 관계된다는 면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¹⁴⁾고 하였다. 패션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상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이상이 분명한 문화적 시기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 흐름과 복식의 표현 양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¹⁵⁾ 이를 통해 우리는 건축과 복식은 하나의 같은 시대 안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패션과 건축의 모더니즘적 특성은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할 연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과 건축이 모더니즘이라는 사조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유사성이 있음을 기본 가정하여,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성과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배경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더니즘 이론가인 폴 그린헬(Paul Greenhalgh)이 말하는 모더니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그린헬의 모더니즘 특성이 건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그린헬의 이론을 배경으로 분석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성이 패션에서는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문제 1에 관한 부분으로 모더니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론적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모더니즘 이론가인 그린헬의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린헬은 현대 모더니즘 이론가 중 건축을 포함한 조형예술 전반에 걸친 모더니즘 특성 분석에 탁월한 저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그의 최근 저서 「Modernism in design(1995)」¹⁶⁾은 모더니즘 이론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총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시기의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고찰, 또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패션 분석이 아니라, 그린헬의 모더니즘 이론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모더니즘 시기의 조형 예술 분야에 나타난 모더니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더니즘 패션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연구문제 2에 관한 부분으로 위 이론적 배경에서 말하는 그린헬의 모더니즘 이론이 다른 조형예술 분야, 즉 본 연구에 있어서는 건축에 있어 모더니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에 관한 부분으로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린헬의 이론을 배경으로 분석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패션 영역에 적용하여 모더니즘 시기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1960년대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더니즘은 한때 그 이념, 규범, 가치의 체계가 동요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적 영역 전반에 걸쳐 비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모더니즘의 개인적, 사회적 해방을 향한 유토피아적 지향성과 예술을 삶 가운데로 육화시키고자 한 모더니즘적 역사의식에 대한 재조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를 거쳐 오며 변형된 모더니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들인 새로움의 전형(Tradition of the New), 기술 진보에 대한 믿음, 전위의 역할,

영웅주의 시대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진보주의, 사회공학 사상 등 모더니즘이 대한 재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모더니즘의 재조명에 대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모더니즘 패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더니즘에 대한 재평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의의로는 디자인 분석에 있어 광범위한 관념적 이론을 통한 디자인 분석이 아니라 특정 이론가의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이론적 배경의 디자인 분석 활용 지점을 선명하게 하였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과 패션의 공통된 조형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패션 분석에 있어 사회·문화적 현상과의 연계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였다 는 점에서 세 번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폴 그린헬의 모더니즘 이론

최근 폴 그린헬은 그의 저서 「Modernism in design (1995)」¹⁷⁾에서 건축을 포함한 조형예술 분야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총체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먼저, 20세기 모더니즘 운동을 1932년 뉴욕의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에서 열린 국제양식(The International Style)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전후로 두 특징적 양태로 구분지어 이해한다. 그린헬에 의하면 모더니즘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선언서와 함께 현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고 제시하려는 이론적 시기이다. 즉, 어떻게 디자인 된 세계가 인간의 의식을 변모 시킬 수 있고 물질적인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비전이 중시된 시기이다. 이러한 모더니즘 첫 번째 단계의 대표적 활동으로 그린헬은 네덜란드의 데 스타일(De Stijl)과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 이태리의 미래주의(Futurism), 프랑스의 입체파(Cubism), 그리고 러시아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등을 들고 있으며 이 시기를 소위 모더니즘의 개척자적 단계(Pioneer phase)로 분류하고 있다.¹⁸⁾ 그리고 그 이후 두 번

째 단계는 공학의 발달과 대량생산을 통한 통일된 스타일의 개발과 기술에 더 큰 관심을 두었던 양식적 시기로 분류·대표할 수 있으며 그린헬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두 번째 단계를 인터내셔널 스타일(International Style)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각각의 그룹들마다 이론적 차이를 보이긴 하나 건축을 포함한 다른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공통된 미학적 특성을 그린헬은 다음과 같이 크게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비구획화/생활화(Decompartamentalisation)
- 사회적 도덕성(Social Morality)
- 진실(Truth)
- 총체적인 예술(The total work of art)
- 기술(Technology)
- 기능(Function)
- 진보(Progress)
- 반역사주의(Anti-historicism)
- 추상(Abstract)
- 국제주의/보편성(Internationalism/Universality)
- 의식의 변형(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 신학(Theology)

그린헬이 말하는 비구획화/생활화(Decompartimentalisation)는 특정 계급 보다는 대중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기능적이고 미적으로 우수한 상품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사회 문화적 경험의 균형과 비구획화/생활화를 이루려는 믿음이다. 미학, 기술과 사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대중을 위해 만들어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시각적·실질적인 질을 가진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여 인간 경험의 비구획화/생활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도덕성(Social Morality)은 기계사용의 확대와 개인성 상실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대량생산은 사람들의 이질적 감각과 경험의 점차적인 감소와 현대사회에 적절한 윤리, 도덕성의 이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모던 디자인은 도시 사회에서의 외양적 소외와 싸우는 무기로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활동이며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도덕성을 달성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는 모던 디자인을 소비하는 사람

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디자인은 대중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변모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진실성(Truth)은 특히 조형예술분야에서 과거 양식의 모방이나 부정확한 인상을 제공하는 장식의 고안 대신, 구조적 관계의 솔직한 표출이 도덕적 가치로의 진실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이며 미학적 질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브제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의 시각적인 매력은 구성의 과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환상을 만들거나 거짓된 느낌을 주는 장치의 회피를 의미한다. 총체적인 예술(The total work of art)은 모든 예술작품들은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해 각기 다른 기능과 제조기술을 인정하되 통일된 사상적, 그리고 미학적 표현 안에서 작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더니스트 세계에서 예술은 다른 분야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술(Technology)은 공학에 의한 표준화, 대량생산, 대중화가 불균형적 사회구조의 재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구성요소의 표준화는 오브제의 급속한 수정과 수리를 가능하게 한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오브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능(Function)은 실용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모든 생산품의 최고 가치는 그것이 지난 실용적 기능과 다른 부분과의 과학적 조직관계 안에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오브제는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야 하며, 그 계획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Progress)는 모든 인간성의 측면이 과거의 수준을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형태로 진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세계 문명의 진행 현상으로 사회진화론이 받아들여졌으며 현대 과학이나 공학의 발전이 이러한 진화론적 과정의 핵심적 제명인 진보론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신념이다. 반역사주의(Anti-historicism)는 과거의 것을 연습, 답습하는 방법 대신에 전통적인 모티브를 제거하고 장식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구조물을 창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인류가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사회를 나타내는 과거에서 벗

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과거의 스타일은 미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의 장식이 구식이기 때문에 반역사주의는 반장식주의와 맥락이 유사하다. 추상(Abstract)은 미란 상대적인 것보다 영원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직선이나 단순한 원 혹은 평면을 사용한 예술의 기하학적 합축성 혹은 추상성이 바로 플라톤적인 미, 즉 순수성과 진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믿음이다. 추상은 디자인에서의 비유적인 요소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함축한다. 따라서 대상의 설명적이거나 상징적인 전달체로서의 잠재성에 대한 상당한 절하가 있게 된다. 국제주의/보편성(Internationalism/Universality)은 과거의 보수적 국수주의는 잘못 진행된 사회·심리적 이데올로기로 일차세계대전과 같은 지역적 정치 지배권의 갈등을 낳을 뿐이며 국제주의/보편성이야 말로 통일된 자아의식 속에서 전세계 문화의 진보적 발전과 새로운 도덕성의 발전을 위한 미학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의 외양이 세계적이라면 전쟁으로 이끌 수 있는 감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문화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주의의 미학적 원리는 보편성의 개념과 관련된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기하학적 추상은 보편성을 획득하는 핵심 장치이다. 의식의 변형(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은 디자인이 소비자의 기분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개선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시를 재디자인 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환경조건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안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학(Theology)에 있어 그린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던 디자인은 경제적 수단에 대한 실용적 목표를 넘어섰고 인간영혼의 미학적 만족과 깊게 관련되었다. 미학적 만족감은 현대사회의 존재론적 기초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이는 단지 스타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에 보여지는 방법에 의하여 미학적 만족감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린헬의 모더니즘에 대한 12가지 특성은

모더니즘의 현상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더니즘적 디자인 사고를 가능하게끔 하는 시대정신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오브제에 나타난 현상적 특성은 시대정신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들은 그 현상적 특성에 적합한 시대정신적 특성을 함께 뮤어 몇 가지의 일반적인 모더니즘 특성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 그린헬의 12가지 특성을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합리주의적 기능성',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여 디자인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표 1)。

〈표 1〉 모더니즘의 특성에 대한 분류

| 그린헬의 분류 | 모더니즘 특성 | 내용 |
|---|---------------------|--|
| 비구획화/생활화 (Decompartmentalisation) |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 기술에 의한 표준화, 대량생산은 대중을 위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사회·문화적 경험의 균형과 비구획화는 현대 사회에 적절한 윤리, 도덕성의 이론을 가져올 수 있다. |
| 사회적 도덕성(Social Morality) | | |
| 기술(Technology) | | |
| 총체적인 예술 (The total work of art) | 합리주의적 기능성 | 실용적인 기능성은 오브제의 제작에 있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 있어 통일된 사상적/미학적 표현 안에서 총체적인 예술로서 합리적으로 작업되어야 한다. |
| 기능(Function) | | |
| 진실(Truth) |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 | 부정확한 인상을 제공하는 과거의 양식이나 장식의 고안 대신, 기하학적 함축성 또는 추상을 통한 순수성과 진실성의 표현이 미의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사물의 진실성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
| 반역사주의(Anti-historicism) | | |
| 추상(Abstraction) | | |
| 국제주의/보편성 (Internationalism/Universality) | | |
| 진보(Progress) |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 |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의식의 변형은 미학적 만족과 함께 시각의 변화를 유도하며, 모든 인간성의 측면이 과거의 수준을 벗어나 더 높은 수준으로 진보하여 새로운 세계 문명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
| 의식의 변형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 | |
| 신학(Theology) | | |

III. 건축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기 이전에 건축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자 한다. 그 이유는 모더니즘이 이론에서 밝혀진 조형적 특성을 패션에 직접 적용시키기 이전에 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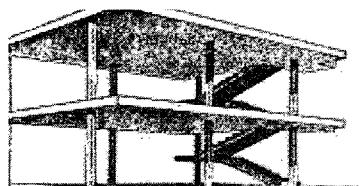
론적·양식적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건축 분야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을 먼저 알아봄으로써 이론과 실제 디자인과의 연결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의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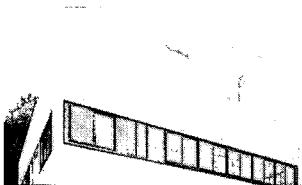
기술에 의한 표준화. 대량생산은 대중을 위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사회·문화적 경험의 균형과 비구획화는 현대 사회에 적절한 윤리, 도덕성의 이론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 표준화를 통한 건축의 대량생산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의 경우

건축의 표준화와 대량생산의 기회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오게 되었다. 당시에는 대규모의 집합거주계획 (Siedlungen, 1929)들이 입안되었으며 이 계획에 참여한 그로피우스는 학교, 상점가까지 갖추어지고 적당한 공지와 합리적인 일조계획까지 갖춘 근대적인 아파트단지를 설계하였다. 그를 특히 유명하게 한 것은, 1919년 데사우(Dessau)에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종합학교를 조직한 것으로, 그는 학교시설을

새로운 건축이념에 입각하여 설계, 건설(1926)하였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사상을 교육하였다. 이는 디자인사에 매우 큰 업적이었다. 바우하우스의 사상은 미술을 모두 종합하여 통합하는 접근 방법과 근대공업 생산의 중요성을 근대 디자인의 최대요건으로 삼았던 것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학교는 건축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의 모든 부분에서 기술적·미적·상업적 요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양산의 기준이 되는 우수한 디자인을 창안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양성하였으며 제품을 만드는 기계와 관련시켜서 실제적 작업의 지도를 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¹⁹⁾



〈그림 1〉 Le Corbusier,
도미노 시스템(Domino System), 1914²⁰⁾



〈그림 2〉 Le Corbusier,
빌라 사보와 전경, 1923-31²¹⁾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20세기 초 새로운 소재로 등장한 철근콘크리트에 주목하여 도미노 시스템이라고 하는 양산 가능한 주택의 원형을 고안하였다(그림 1). 이 도미노 시스템은 계획상 기본적인 틀은 건축가가 제시하고 나머지는 건축주의 자유에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바닥판, 공간 간접, 각 부분의 기능 등을 서로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것을 계단실로 연결한다는 계획이 그 핵심이다.²²⁾ 도미노 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적층의 가장 기본층수인 2층을 최소한도로 구성할 수 있는 평坦한 바닥판 세 개, 하중을 지탱하는 가느다란 기둥 여섯 개, 적층 공간의 동선을 이어주는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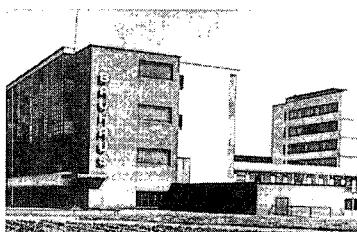
단실 한 개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입면이 기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고, 하중을 전적으로 기둥이 전 담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도미노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자유롭게 서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이 매우 용이하다.²³⁾ 고르뷔지에가 제시한 도미노 시스템을 적용하여 완성한 대표 작품은 포와지에 있는 빌라 사보와(그림 2)이다. 이 건축은 견고한 매스가 아니라 하나의 볼륨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동일한 형태의 양산가능한 개방된 외관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의 추구는 규격화, 규칙성, 건축 재료의 표준화, 불필요한 공정의 제거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양산을 위한 디자인 원형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2. 합리주의적 기능성

실용적인 기능성은 오브제의 제작에 있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 있어 통일된 사상적·미학적 표현 안에서 총체적인 예술로서 합리적으로 작업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능의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건축가들의 건축적 사고 행위와 디자인 접근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20세기 초 근대 건축이 표방해 온 기능주의는 건축의 존재를 실체로서 보다는 작용성의 측면에서 주로 해석하였다. 미첼(William J. Mitchell)이 지적하였듯이 이 시기의 기능주의자들은 건축적 요소와 부분 체계들이 건물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구조적 체계와 기타 물질의 부분 체계 상호간의 적합한 실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활동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²⁴⁾ 그러므로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알솝(Bruce Allsopp)이 지적한 것처럼 미란 대상의 속성에서 나오며 '목적에의 형태의 적합성'이 미의 결정인자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었다. 여기에서 목적에의 형태의 적합성의 개념은 분석적 과정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유용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적 형태는 곧 유용성

과 동일한 개념으로 평가되었다.²⁵⁾ 기능적 사고의 논리에 따르면, 좋은 건축 디자인은 실제적 목적이 적절하게 수용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형태적 구성에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목적과 무관한 전통적인 역사적 양식형태의 남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축 형태와 공간은 기능과 구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그 존재의 근거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 평면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입체 구성에서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일관성도 기능적 해결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부는 내부 구성의 결과이며, 또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발생하는 논리적 프로세스의 결과로 간주된다.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실용성과 외관의 본래론적 결속'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는 근대 건축가들의 사고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²⁶⁾ 비엔나 학파의 창시자 바그너(W. Bagner)는 모던 건축에서 기능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건축의 합리주의적 개념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 예술성과 합목적성을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을 도출하였다.²⁷⁾



〈그림 3〉 Walter Gropius, 바우하우스 전면, 1925-26.²⁸⁾

이 시기 건축에 대한 윤리관이나 방법론에서 예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기능적·공학·기술적·미학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로우피스는 건축의 기능에 대한 성실한 관점에서 파생되지 않은 직관적인 형태의 표출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이라고 거부하였다. 그가 설계한 바우하우스 교사는 여러 내부 기능을 반영하는 형태, 규모, 위치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전체의 관계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접근한 결과이다(그림 3).²⁹⁾ 이것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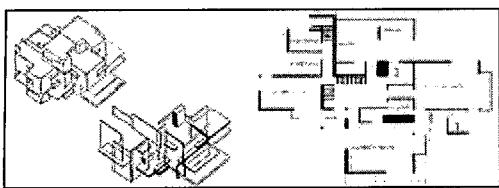
장 단순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종이 팔랑개비 모양의 평면에 가장자리는 유리로 처리되어 있으며 단단한 벽과 유리로 채워진 투명한 벽이 번갈아가며 늘어서 있다.³⁰⁾

즉,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 합리주의적 기능성의 추구는 공간을 기능과 용도,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목적물로 파악되는 신념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축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적 기능성은 각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 모든 기능의 합리적 작용에 디자인의 중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3.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

이는 부정확한 인상을 제공하는 과거의 양식이나 장식의 고안 대신, 기하학적 합축성 또는 추상을 통한 순수성과 진실성의 표현이 미의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사물의 진실성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를 통해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 사고의 유형은 수와 비례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식 개념과 그것이 주는 질서의 감각을 디자인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스티븐스(G. Stevens)는 건축가들이 기하학을 건축 디자인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³¹⁾ 역사적으로 수와 기하학은 건축가들에게 완벽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기준이 되어왔다. 많은 건축가들이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 원천을 입방체, 구, 원통형, 피라미드 등처럼 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기하학 형태나 상징적 수와의 조화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 개념과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디자인 된 건축이 보편적 질서와 조화를 인간의 의식 속에 형성시킬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

데 스틸의 대표적 건축가인 테오 반 도스부르그(Theo van Doesburg)는 기하학적 분해에 의한 구성 개념을 바탕으로 기하학적이고 조형적인 건축을 주장하였다. 그가 추구한 반-입방체 공간과 형태 구성의 개념은 직선, 1차적 형태, 색채, 평면, 직사각



〈그림 4〉 Theo van Doesburg, Cornelius van Esteren,
특수 주택의 역구성 분해도와 평면도, 1923³²⁾



〈그림 5〉 Theo Van Doesburg,
시네마 댄스홀 내부 및 투상도, 1929-31³³⁾

형 등을 바탕으로 추상적, 반자연주의적인 요소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것이었다.³⁴⁾ 이러한 기하학적 조형성에 바탕을 둔 사고는 1923년 건축가 반 에스테렌(Cornelius van Esteren)과 협력하여 구상한 특수 주택의 역구성 습작에서 잘 나타난다(그림 4).

“이 주택은 그 3차원의 조형 요소로 분해, 해체되었다... 이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오브제가 되었다... 지면에서 해방되었으며, 천정은 육상 테라스. 즉 개방되어 덮개가 없는 층이 되었다.”³⁵⁾

여기서 제시된 새로운 공간 구성의 개념은 신조형주의의 개념에 기초한 2차원적인 회화를 공간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회화와 건축의 유기적인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 즉, 추상 회화가 건축에 미치는 영향과 공간과 색에 대한 개념을 원색의 기하학적 형태의 도입이라는 데 스타일적인 표현방법을 통하여 구체화하려고 한 결과이다. 또한 그가 설계한 시네마 댄스홀(그림 5)의 내부에 나타난 기하학적 선들과 백색, 회색, 흑색 등의 원색으로 구성된 면들은 건축에서의 기하학적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에 있어서의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는 정방형, 장방형, 원, 십자형, 곡선 등의 기하학적 요소를 건축의 기초로 삼는 기하학적 조형성을 통해 주로 표현되었으며, 기하학적

요소의 조합을 통한 역동성을 시도하고 있다. 기하학적 추상에 의해 획득되는 구조와 재료의 정직한 표현은 반역사주의적이면서도 미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국제적 건축양식들의 기본 양식이 되었다.

4.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의식의 변형은 미학적 만족과 함께 시각의 변화를 유도하며, 모든 인간성의 측면이 과거의 수준을 벗어나 더 높은 수준으로 진보하여 새로운 세계 문명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18세기 초에 시작된 산업 혁명 이후, 공업화와 기계의 사용에 의한 생산 방식과 더불어 19세기의 기술적 진보로 나타난 새로운 건물 유형, 새로운 재료의 개발, 새로운 공법의 발달, 공학적 분석 방법론 등은 건축적 과제의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의 자연 과학과 공학의 비약적인 진보, 추상적 역학 이론 등의 발달로 가능해진 프로그램과 구조에 대한 합리적, 분석적 접근 방법 등은 새로운 재료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축에 논리적인 접근 방법의 당위성을 부여하였다.³⁶⁾



〈그림 6〉 Joseph Paxton, 수정궁(Crystal Palace)
내부, 1850-51³⁷⁾

1851년은 현대건축사의 전환점으로 특징지어진다. 최초의 대규모 세계박람회가 런던에 준비되었고, 이를 위해 팍스톤(Joseph Paxton)에 의해 건설된 수정궁은 과거 양식들에 대한 모든 관련을 생략한 최초의 대규모 상업 건물이다(그림 6). 그 건물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 즉 개방된 확장의 실현을 나타냈다. 그것은 극도로 가볍고 섬세한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철제 골격에 바탕을 두었

다. 벽체와 기둥은 완전히 유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판의 숫자는 293,655개에 이른다. 상호관련 된 부분들의 정적 평형 대신에 전체에 걸친 똑같은 구조체계의 반복에 의해 일관성이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들은 건축을 삶의 새로운 기능들과 형태들에 맞추도록 해방시켰다. 수정궁은 새로운 유형의 건축표현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되었는데, 그것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에 대한 일반적 신념을 증명하였다.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감정들이 거대하고 밝은 공간에 의해 유발되었다. 이 건물은 철·유리 구조의 시대를 일으켰으며, 그 시대의 이름 없는 주거들에서조차도 커다란 유리면은 새로운 세계의 실존공간을 아주 분명하게 구체화한 투명한 재료의 상징적 중요성의 증거를 제시하며 일반적이 되었다.³⁸⁾

이처럼 건축에 나타난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은 신공법, 유리, 강철, 콘크리트 등의 신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과학, 공학을 통한 진보와 이를 통한 심리적, 미적 만족을 추구하였다.

IV.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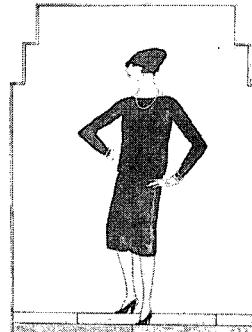
동시대의 모든 조형 예술 작품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특성, 철학, 심미안, 경제적 환경, 문화 등 여러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는 중요한 표현의 장이 된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각 예술 영역에 있어 그 상호간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셔(V. Fischer)는 대개의 디자인 된 오브제들은 그것들만의 분명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오브제들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형상들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³⁹⁾ 따라서 어느 특정 시대의 특정 예술 영역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다른 예술 영역과의 비교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오브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보편적인 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시기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건축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분

류 목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건축에서의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가 양산을 위한 디자인 원형의 개발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시기의 패션에 있어서도 대중을 위한 양산 가능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패션은 아르누보(art nouveau) 시대의 부를 과시하는 과도한 치장에서 벗어나 복식에서의 순수성과 평면성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단순성은 기계 생산에 의한 기성복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발전은 이미 19세기 말 직물의 기술적 혁신, 재봉틀 및 합성섬유, 염료, 패턴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기성복 발전을 가속화시켰으며 기성복은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성과 빠른 보급력을 따라 패션의 민주화를 실현하였다.⁴⁰⁾



〈그림 7〉 Chanel의 little black dress⁴¹⁾



〈그림 8〉 1942년 10월호 'Vogue'에 실린 실용 의복 디자인⁴²⁾

샤넬의 모던한 미의식은 심플한 형태와 저지(jersey)라는 실용적 소재뿐만 아니라 검정(black)이라는 색상에 의해서도 표현되었다(그림 7). 그녀는 원색을 위주로 한 기존의 유행색에 반대하여 검은색을 여성복에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샤넬은 검은색을 '모든 색을 이기는 절대적인 색'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대중을 위한 색이라고 생각하였다.⁴³⁾ 1926년 미국 보그(Vogue)지는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를 대량생산되는 포드(Ford) 자동차에 비교하면서 포드 자동차처럼 폭넓은 시장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대량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대중을 위한 색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20세기 사회의 분위기가 향하고 있었던 방향,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용할 수 있는 옷에 확실한 진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간파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는 대중을 위한 검은색을 현대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만들었다. 검은색은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대중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익명의 색이었다.⁴⁴⁾

1941년 상무성이 실행한 실용계획안은 재료와 노동력 사용을 제한하면서 중저가 소비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최적으로 규격화해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용'이라는 말은 실용 천으로 만들어진 의복에 적용되었으며 최소한도 품질 수준과 최대한도의 소비자 가격이라는 견지에서 정의되었다.⁴⁵⁾ 〈그림 8〉은 1942년 10월호 '보그'에 실린 실용 의복 디자인이다. 이는 런던 패션디자이너 협회가 만든 기능적이고 단순한 실용 의복으로 왼쪽 3개의 단추와 주머니가 달린 테일러드 코트, 가운데 고어 스커트와 칼라 없는 체크 수트, 오른쪽 더블 브레스트의 기병대용 울트윌 코트 등 규격화된 수트 스타일이 실용 의복으로 제안되었다. 기계 생산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기성복은 테일러드 수트의 형태로, 과거에 비해 획일적인 형태이지만 대중에게 패션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⁴⁶⁾

이렇듯 건축과 패션에 보여 지는 표준화된 디자인 기술의 경향은 대중을 위한 디자인 제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대량생산은 모더니즘 시대의 사회에 그린헬이 말한 '비구획화/생활화' 및 '사회적 도덕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합리주의적 기능성

건축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적 기능성이 각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 모든 기능의 합리적 작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패션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적 기능성은 모더니즘 이전 시기의 패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활동성의 비약적 증진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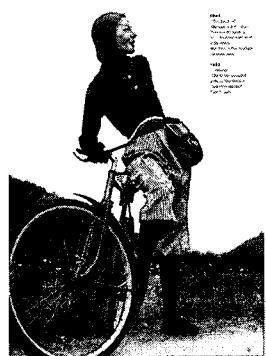
다. 즉, 패션에 있어 모든 디자인 요소들은 활동성의 증진을 위해 각 부분과 전체에 있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새로움과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시도는 1900년대 이후 복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대화와 자유를 구가하는 사회의 욕구에 의하여 복식에서도 민주화·가속화·기능화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당시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기능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공감하여 단순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창조해내고자 하였다.

초기 모더니즘의 토대를 세웠다고 말해지는 뿐아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를 통한 현대적인 표현을 시도한 디자이너였다. 그는 패션에 있어 과다한 장식적 요소와 수세기 동안 인체를 구속하였던 코르셋을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인체의 자유와 활동적인 기능성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후 코르셋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많은 천을 허리 부분에 대거나 천의 이음새도 되도록 적게 하여 직선적으로 마무리 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코르셋은 인체의 흐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기능성 추구의 결과였다.



〈그림 9〉 Chanel의
가르손느 룩⁴⁷⁾



〈그림 10〉 Patou의
스포츠 웨어⁴⁸⁾

샤넬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젊은 여성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그들을 위한 합리적인 패션을 창조한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그는 1920년대에 절정을 이룬 가르손느 룩을 제시하였는데 슬립한

실루엣과 편안하고 기능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그림 9).⁴⁹⁾ 이 스타일은 웨이스트와 가슴의 곡선 미가 사라진 일직선의 실루엣에 머리는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하게 짧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스커트의 길이는 짧아졌으며 플리츠, 플레어를 사용하였고 낮은 구두를 신어 움직임에 있어 매우 기능적이었다. ‘심플하고 입어서 편하며 불필요한 것이 없을 것, 나는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새로운 복식에서도 입시켰다’⁵⁰⁾고 샤넬이 말했듯이 당시의 복식에서 기능성의 추구에 대한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다. 기능성의 배경에는 스포츠의 대중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미국의 기능주의와 현대 예술의 영향 등이 있었다. 20년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은 바로 스포츠 스타였으며 이러한 스포츠 여성들의 영향으로 패션은 더 자유롭고 기능적으로 변하였다. 짧은 스커트, 소매 없는 블라우스, 맨다리의 노출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의복은 캐주얼복으로 일반 의복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⁵¹⁾ 스포츠의 유행은 현대 패션으로 변하는 여성 패션에 있어 기능적 스타일과 소재의 변화를 주기에 충분한 요소였다. 여성들은 슬림한 육체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패션에 있어서 보다 편한 기능적인 의복을 원하게 되었다. <그림 10>은 빠뚜(Jean Patou)가 디자인한 하이킹을 위한 스포츠 웨어이다. 이 시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자유롭고 기능적인 복식을 유행시켰으며 스포츠가 일상생활에 캐주얼한 의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뉴 딜 정책과 같은 사회적 프로그램의 영향도 이러한 블을 조성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는 공공 테니스 코트의 수적 증가, 골프 클럽의 증가, 수영장의 증가로 인한 일반 대중들의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들은 스포츠복을 입는데 익숙해졌고 여성들도 짧은 의복이나 파자마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양식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이끌었으며 전통적인 삶의 거부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의복을 원했던 사람들은 기능적인 의복에 몰입하게 되었다.⁵²⁾

이렇듯 건축과 패션에 보여지는 합리주의적 기능성은 건축과 패션을 구성하는 각기 디자인 요소

들이 기능성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하여 새로이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모더니즘 디자인은 이전 시기의 비합리적 기능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그린헬이 말하는 ‘총체적인 예술’의 개념과 ‘기능’의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

3.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

건축에 있어서의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가 기하학적 추상의 디자인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패션에서도 기하학적 추상을 활용한 디자인은 모더니즘 시기의 패션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빌딩을 건축하는 것과 옷을 만드는 것은 모두 실용성이 있으며 아주 조화롭고 우아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복식 디자인은 현대 건축물이 지니는 단순함과 기능성, 기하학적 특징을 모두 겸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다”⁵³⁾고 언급한 구레쥬(André Courrèges)의 말처럼 이 시기 패션 디자인은 건축 구조물의 기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창조되어졌으며 이는 모던 예술 양식 가운데 가장 극단적 모더니즘의 한 형태인 신조형주의 디자인과 공통된 외관을 보여준다. 이 시기 건축이 지니고 있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장식이 배제된 특성에 따라 패션에서도 소재 자체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 디테일과 트리밍을 배제하였으며,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가장 미적으로 조화로운 형태가 창출되었다.



<그림 11> Courrèges의 미니스커트⁵⁴⁾



<그림 12> Courrèges의 기하학적 디자인⁵⁵⁾

이 시기 디자이너들은 신조형주의의 자연물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환원해서 평면에 배치하는 방법

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직과 수평선 그리고 선들의 교차에 의해 생긴 공간들을 염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배치하였다.⁵⁶⁾ 꾸레쥬는 굽 없는 신발을 디자인에 채택하면서 여자들의 몸의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 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머리에 모자를 쓰게 했는데, 모자는 실루엣을 크게 보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옷에 어깨 심을 고정시키고 짧은 양말과 부츠로 발을 덮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패션 아이템들과의 비례를 위하여 미니스커트를 채택하였다(그림 11). <그림 12> 는 기하학적 조형성의 영향을 받은 꾸레쥬의 작품으로 기초적인 기하학인 직선적인 실루엣과 수평선, 수직선, 사각형, 원 등의 요소를 패턴으로 사용하여 심플한 단순미를 추구하였다. 꾸레쥬는 개비단 천을 두 겹으로 한 후 두 천 사이에 흙을 만들어 볼륨을 주고 둥글게 만들었다고 한다. 즉 천의 소재와 색상을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처리하여 다른 기하학적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또한 무게감과 직선, 직각 그리고 컴퍼스로 치수를 균형 있게 처리하면서 옷의 안정까지 계산하여 몸의 움직임에 맞도록 보안하였다고 한다.⁵⁷⁾ 또한 흰색을 주지색으로 하여 원색과의 강렬한 대비 효과를 디자인의 요소로 많이 사용하였다. 꾸레쥬는 흰색을 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시 여긴다고 하였으며 건강함, 깨끗함,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흰색의 사용은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실루엣, 비장식적인 간결함과 함께 모던한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이다. 이는 신조형주의와 외관상 공통점을 갖는데 흰색과 삼원색의 비례에 의한 배치를 통하여 흰색의 면은 여백을 상징하고 색이 있는 면은 무게를 가지는 물체가 있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이 원리는 건축 및 다른 조형 분야에서도 적용되었으며 패션에서도 흰색을 주조색으로, 삼원색을 악센트 컬러로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건축과 패션에 보여 지는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는 기하학적 추상의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패션에 있어 이러한 기하학적 추상의 디자인은 그린헬이 말한 '진실'과 '추상'이라는

모더니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기하학적 추상은 또한 '국제주의/보편적' 미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 양식을 통하여 그린헬이 말하는 '반역사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4.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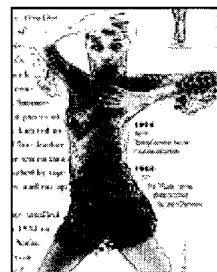
건축에서의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은 새로운 건축소재의 사용 및 새로운 공법, 새로운 개념의 표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좀 더 나은 삶으로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패션에서도 건축과 마찬가지로 소재의 사용, 가공법 등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패션과 관련한 일반적인 시각의 변화를 유도하여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3> Chanel의 저지를 이용한 디자인⁵⁸⁾



<그림 14> Courrèges의 꽃무늬 패턴⁵⁹⁾



<그림 15> Paco Rabanne의 metal dress⁶⁰⁾

이 시기 패션에서는 건축과 마찬가지로 기계미학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이 전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재료를 많이 사용하며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불필요한 구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효율적인 형태적 특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속옷으로 쓰이던 저지의 사용으로 인한 활동성의 증진과 육체의 해방은 소재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샤넬이 '저지를 발견하여 인체를 해방하고 허리선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였다'⁶¹⁾고 했듯이, 저지는 직물 자체의 신축성으로 다아트나 여유분을 주지 않아도 인체를 자유롭게 해서 편안한 움직임과 느긋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샤넬은 그때까지 한번도 오뜨꾸띠르(haute couture)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소박한 소재를 선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그림 13). 의복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재료를 패션에 도입한 디자이너로 파코 라반(Paco Rabanne), 꾸레쥬,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 등이 있다. 이들은 과다한 장식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유리, 비닐, 메탈, 시퀀스 등의 non-fabric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바늘과 실이라는 전통적인 재단 봉제 방법에서 탈피하여 금속 링이나 리벳으로 연결하여 의상은 원래 이어져 있는 옷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도 하였다. <그림 14>는 꾸레쥬가 디자인한 비앙쉬니-페리에의 '쉬포니'로 이 꽃들은 앞면과 뒷면에 물을 잘 빨아들이는 솜으로 채워놓았다. 또한 꽃의 중앙은 비치도록(see-through) 처리되어 투명성을 표현하였다. 꾸레쥬는 기하학적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지색으로 사용하였던 흰색을 뛰어넘어 투명함을 추구하게 된다. 투명함은 시적 영감에 따라서 때로는 공기를, 때로는 물을, 때로는 하늘을, 때로는 바다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창조의 단계인 디자인 과정에서는 종이에 그린 크로키에 한 장 또는 여러 장의 투명 셀로판지를 겹쳐 놓은 후 잉크나 수성펜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⁶²⁾ <그림 15>는 메탈 체인을 이용한 원피스로 파코 라반의 작품이다. 파코 라반은 알루미늄, 금 체인, 광섬유, 플라스틱 튜브 등의 다양한 소재를 여러 가지로 조합하였다. 또 다른 예로, 이 시기 수영복은 면이나 모로 만들어졌는데 모든 너무 더워서 여름에 불편

하였고 젖으면 무거워졌다. 1930년대 당시 세계적인 수영복 제조업체였던 미국의 진첸 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영복의 양 옆을 고무 립 스티치로 마무리해 신축성을 배가한 새로운 수영복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니트 기계를 개발해 인체에 잘 맞는 수영복을 생산하게 되었다.⁶³⁾ 이는 새로운 생산 방법과 기계 도입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건축과 패션에 보여 지는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은 모더니즘 시기의 최첨단 소재, 또는 건축이나 패션재료로서 과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던 소재 등의 활용을 통하여 종래의 건축과 패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결국 대중들에게 그린헬이 말한 '진보', '의식의 변형', '신학' 등의 개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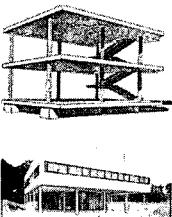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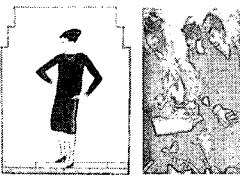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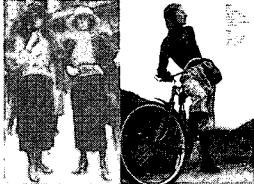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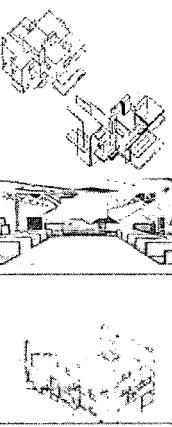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을 위와 같이 4가지 분류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V. 결론

모더니즘을 일반적 인식체계로 삼은 근대는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급격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사상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근대적 민주주의 이념이 확대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의 증가와 부의 축적으로 인하여 부르주아지라는 신흥 계급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으며, 또한 유례없는 과학과 기술상의 진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과 사유 방식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모더니즘은 진보의 원리, 과학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성 숭배, 자유의 이상 등을 문명의 중심 가치로서 표방하였으며 20세기 초 사회, 문화, 예술 영역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모더니즘을 그린헬은 그의 저서를 통해 비구획화/생활화, 사회적 도덕성, 진실, 충체적인 예술, 기술, 기능, 진보, 반역사주의, 추상, 국제주의/

〈표 2〉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 | 건축 | 패션 |
|---------------------------------|--|---|
|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화, 규칙성 - 건축재료의 표준화 - 불필요한 공정 제거 - 양산 가능한 주택 원형의 고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플한 형태 - 대량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검은색의 사용 - 규격화 생산 -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기성복 산업의 발전 |
| 합리 주의적 기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의 형태의 적합성 - 유용성 - 기능과 구조에 의한 합리적 건축형태와 공간 - 뚜렷한 일관성 - 실용성과 외관의 본체론적 결속 - 모든 기능의 합리적 작용에 디자인중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림한 실루엣 - 짧아진 스커트 길이 - 낮은 구두의 착용을 통한 기능적 움직임 - 입어서 편하며 불필요한 것이 없는 디자인 - 스포츠 패션의 부상 - 활동성의 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
|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와 비례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식 개념 - 임방체, 구, 원통형, 피라미드 등 내적 통일성을 지닌 기하학 형태 및 수와의 조화 속에서 디자인 문제 해결 - 직선, 1차적 형태, 색채, 평면, 직사각형 등을 바탕으로 추상적, 반자연주의적 요소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 - 원색의 사용 - 구조와 재료의 정직한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플한 단순미 추구 - 소재 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 - 디테일과 트리밍 등 장식을 배제한 엄격한 비례의 원칙 준수 - 신조형주의 디자인과 공통된 외관 - 수직과 수평선, 선들의 교차에 의해 생긴 공간들에 엄격한 비례의 원칙 적용 - 직선적인 실루엣 - 수평선, 수직선, 사각형, 원 등의 패턴 사용 - 흰색을 주지색으로 하여 원색과의 강렬한 대비 효과를 사용 - 기하학적 추상을 활용한 디자인 |
|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재료의 개발 - 유리, 강철, 콘크리트 등의 신소재 사용 - 새로운 공법의 발달 - 자연과학과 공학의 비약적인 진보, 추상적 역학 이론 등의 발달로 가능한 구조에 대한 합리적, 분석적 접근 - 새로운 재료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객관적으로 이용 - 새로운 유형의 건축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으로 쓰이지 않던 저지 소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물 소재에 관한 인식의 획기적 변화 - 새로운 생산방법과 기계 도입을 통한 디자인의 창조 - 유리, 비닐, 메탈, 시퀀스, 알루미늄, 광섬유, 플라스틱 투브 등 의복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재료를 패션에 도입 - 소재의 사용, 가공법 등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짐 |

보편성, 의식의 변형, 신학 등 12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을 그린헬의 이론의 빌어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합리주의적 기능성’,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더니즘 시기의 건축과 패션의 표현 방식에 있어 그 세부적으로 사용되는 재질 및 직접적인 구성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시대정신적 특성의 공통점에서 오는 조형성에는 깊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는 그린헬의 ‘비구획화/생활화’, ‘사회적 도덕성’, ‘기술’ 개념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기술에 의한 표준화, 대량생산은 대중을 위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사회·문화적 경험의 균형과 비구획화는 현대 사회에 적절한 윤리, 도덕성의 이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는 양산을 위한 디자인 원형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패션에 있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성복 디자인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 ‘합리주의적 기능성’은 그린헬의 ‘총체적인 예술’, ‘기능’의 개념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실용적인 기능성은 오브제의 제작에 있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 있어 통일된 사상적·미학적 표현 안에서 총체적인 예술로서 합리적으로 작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적 기능성이 각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 모든 기능의 합리적 작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패션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적 기능성은 모더니즘 이전 시기의 패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활동성의 비약적 증진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패션에 있어 모든 디자인 요소들이 활동성의 증진을 위해 각 부분과 전체에 있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는 그린헬의 ‘진실’, ‘반역사주의’, ‘추상’, ‘국제주의/보편성’의 개념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부정확한 인

상을 제공하는 과거의 양식이나 장식의 고안 대신, 기하학적 함축성 또는 추상을 통한 순수성과 진실성의 표현이 미의 보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사물의 진실성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는 것임을 말한다. 건축에 있어서의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의 추구가 기하학적 추상의 디자인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패션에서도 기하학적 추상을 활용한 디자인은 모더니즘 시기의 패션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모더니즘 이전 시기의 장식적이고 지역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단순함과 추상이라는 형식의 보편적 미학을 표현함으로써 모더니즘 건축과 패션은 국제적인 스타일로 거듭나게 된다.

네 번째,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은 그린헬의 ‘진보’, ‘의식의 변형’, ‘신학’의 개념에 의해 유추된 것으로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의식의 변형은 미학적 만족과 함께 시각의 변화를 유도하며, 모든 인간성의 측면이 과거의 수준을 벗어나 더 높은 수준으로 진보하여 새로운 세계 문명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서의 시각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건축소재의 사용 및 새로운 공법, 새로운 미학적 개념의 표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좀 더 나은 삶으로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패션에서도 건축과 마찬가지로 소재의 사용, 가공법 등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패션과 관련한 일반적인 시각의 변화를 유도하여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패션과 건축을 관련시킨 상관성과 그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련성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디자인 유형들을 다른 디자인 분야와의 관계성에 의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모더니즘 패션 연구에 있어 건축 이외에도 다양한 조형 예술 영역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Peter Collins 저. 이정수 역 (2001).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 서울: 태림문화사. pp. 312-323.
- 2) Charles Jenks 저. 이용재 역 (1987). 근대건축운동. 서울: 집문사. pp. 2-10.
- 3) 정현숙 (1995). 예술사조와 패션과의 parallelism에 관한 연구 -모더니즘과 플래퍼룩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3(2).
- 4) 김은덕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박혜원 (1998).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미국 재즈시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논문.
- 6) 하지수 (2001).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강진석 (1990). 사넬복식에 나타난 "機能主義"와 "클래스스타일"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전혜정 (1991). Clair McCadel의 Modernism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7, pp. 1-12.
- 9) 박명희 (1986). 변천하는 여성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50.
- 10) 박숙현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Gabrielle Chanel & Andre Courreges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논문집, 19(2).
- 11) 이미숙 (1998). 사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논문.
- 12) 유수경. 김의경 (2002). 마들렌느 비오네의 작품에 나타난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6), pp. 763-780.
- 13) Lauer, J. C. and Lauer, R. H. (1981).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 6-19.
- 14) Broby Johansen, R. (1968). *Body and clothes*. N.Y.: Reinhold Book Co., p. 5.
- 15) 정현숙. 앞의 책, p. 263.
- 16) Paul Greenhalgh (1995). *Modernism in design*. London: Reaktion Books Ltd.
- 17) Paul Greenhalgh, 위의 책, pp. 1-24.
- 18) 변태호 (1994). 건축에 있어서의 본질과 존재를 위한 소나타-루이스 칸과 하이데거의 건축에 대한 사색.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7), p. 110.
- 19) 윤장섭 (2004). 서양근대건축사. 서울: 기문당, pp. 239-240.
- 20) 길성호 (1999). 현대건축사고론. 서울: 시공문화사. p. 229.
- 21) 길성호. 위의 책, p. 230.
- 22) St Anislaus von Moos 저. 최창길(외) 역 (1988). 르꼬르뷔제의 생애. 서울: 기문당, p. 42.
- 23) 류지연. 김태영 (1997). 기하학적 구성에 나타난 서정성에 관한 연구-르꼬르뷔제의 1920년대 주택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17(1), p. 114.
- 24) William J. Mitchell 저. 김경준(외) 역 (1994). 건축의 형태 언어. 서울: 민음사. p. 187.
- 25) Allsopp Bruce (1977). *A modern theory of architect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 96.
- 26) 길성호. 앞의 책, p. 143.
- 27) 삼전경일 저. 양광용 역 (1985). 건축론. 서울: 동명사. p. 80.
- 28) 길성호. 앞의 책, p. 151.
- 29) 길성호. 위의 책, p. 151.
- 30) Patrick Nuttgens 저. 윤길순 역 (2001). 건축이야기. 서울: 동녘, p. 272.
- 31) Gary Stevens (1990). *The reasoning architect: Mathematics and science design*. New Your: McGraw-Hill Inc, p. 3.
- 32) 길성호. 앞의 책, p. 235.
- 33) 길성호. 위의 책, p. 236.
- 34) 길성호. 위의 책, p. 233.
- 35) V. M. lampugnani (1985). *The gesture and its shadow*. A+U, p.50.
- 36) 길성호. 앞의 책, p. 173.
- 37) 길성호. 위의 책, p. 199.
- 38) C. Norberg Schulz 저. 정영수, 윤재희 역 (2002).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서울: 세진사, pp. 363-366.
- 39) 민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p. 156.
- 40) 하지수. 앞의 책, p. 53.
- 41) Alice Mackrell (1992). *Coco chanel*. New York: Holmes & Meier, p. 74.
- 42) J. Anderson Black 저. 윤길순 역 (1997). 세계 패션사. 서울: 자작아카데미, p. 114.
- 43) 이미숙. 앞의 책, p. 92.
- 44) 이미숙. 위의 책, p. 93.
- 45) J. Anderson Black 저. 윤길순 역. 앞의 책, p. 122.
- 46)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69.
- 47) Aimy de la Hei 저.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 55.
- 48) Pamela Golbin (2001). *Fashoin designers*. New York: Watson Guprill.
- 49) 박숙현. 앞의 책, p. 6.
- 50) 조규화 (1984). 1920년대 가르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의류학회, 8(3), p. 213.
- 51) 박혜원. 앞의 책, p. 48.
- 52) 박혜원. 위의 책, p. 48
- 53) 박숙현. 앞의 책, p. 316.
- 54) Valerie Guillaume 저. 박기완 역 (2002). 세계 유명 패션디자이너 시리즈. 서울: 노라노, p. 24.
- 55) Valerie Guillaume 저. 박기완 역. 위의 책, p. 24.
- 56) Jeean-Luc Daval 저. 홍승혜 역 (1990). 추상미술의 역사. 서울: 미진사, pp. 59-64.
- 57) Valerie Guillaume 저. 박기완 역. 앞의 책, p. 9.
- 58) Valerie Guillaume 저. 박기완 역. 앞의 책, pp. 40-41.
- 59) Pamela Golbin. 앞의 책, p. 35.
- 60) Pamela Golbin. 앞의 책, p. 164.
- 61) 이미숙. 앞의 책, p. 91.
- 62) Valerie Guillaume 저. 박기완 역. 앞의 책, p. 14.
- 63) J. Anderson Black 저. 윤길순 역. 앞의 책, p. 73.